

국내 긍정적행동지원 적용연구의 현황과 지원수준별 필요자원 고찰

이효신(대구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신윤희(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BK21플러스, 연구교수)

정은지(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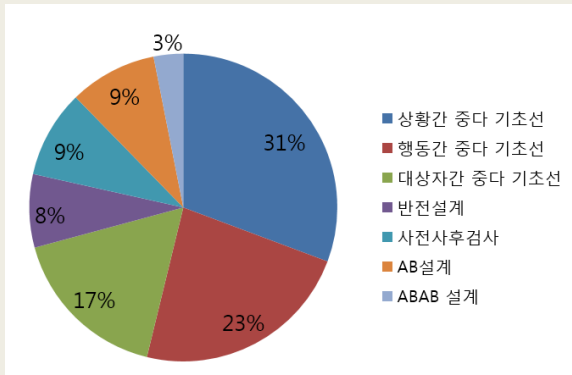
남아주(대구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과정)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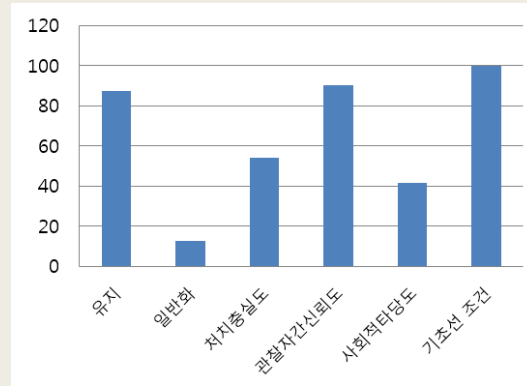
- 긍정적 행동지원은 작년부터 국내에서 교육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올 만큼, 아동기에 일어나는 행동문제들을 지원하고자 노력해 왔음. 그러나 그 노력과는 달리 많은 학교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가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진행된 10년 동안의 긍정적 행동지원 연구 중 학교와 학교를 포함한 가정 등에서 적용된 실험연구를 중심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알아보고, 실행 시 지원수준에 따라 학교에서 필요한 자원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 추후 긍정적행동지원을 확산하는데 기초적 자료가 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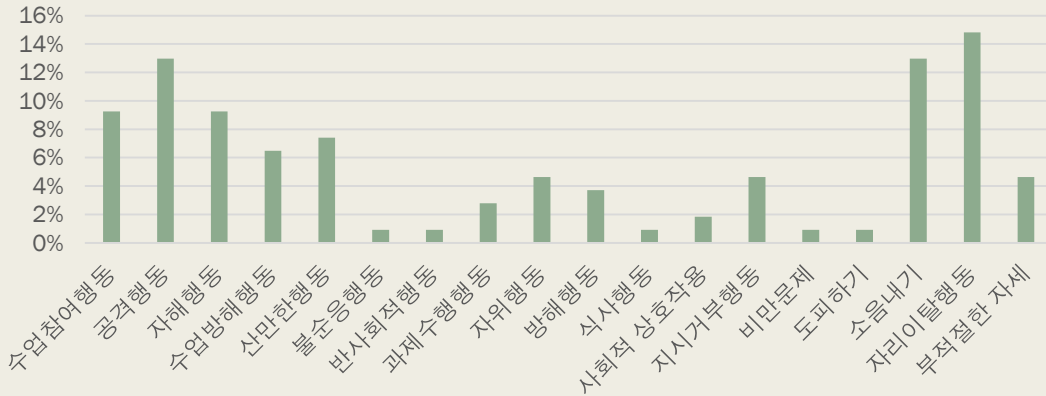
- 연구문제 1. 국내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연구들의 연도별, 저널별 현황과 연구대상, 종속 변인, 실험설계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중재실시요소들을 살펴봄으로서 적용현황을 알아본다.
- 연구문제 2. 국내 긍정적 행동지원을 실행한 연구들의 지원수준을 나누어 지원수준에 따른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필요자원을 알아본다.



<그림4> 연구설계방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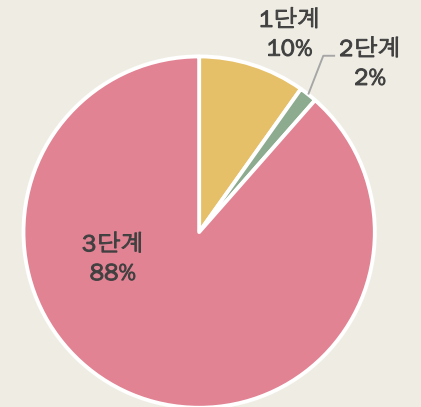
<그림5> 중재시 수행 현황



<그림6> 학생의 문제행동 유형

연구 결과 2

-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대부분 3단계인 개별지원이 88%로 가장 높았다. 1단계인 보편적 지원은 10%, 2단계 소그룹지원은 2%로 나타났다.
- 1단계와 3단계만 사용한 연구는 2편으로, 전반적으로 2단계인 소그룹지원은 드물었다. 또한 각 단계별 지원이 연차적으로 적용되기보다 분리하여 지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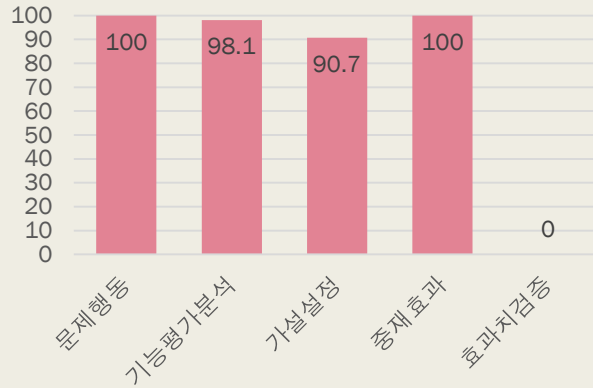


<그림8> 지원 수준별 현황

- 대부분의 연구설계법은 단일대상연구로 중다 기초선 설계가 많았으며, 반전설계나 AB설계로 나타났고, 극소수의 연구들이 사전-사후 통계 방법이나 빈도분석하였다.
- 단일대상연구 중에서 대부분의 연구들이 관찰자 신뢰도와 기초선-중재-유지를 보았으나, 일반화나 사회적 타당도, 처치 충실도는 비교적 수행이 낮았다.
- 종속변인에 있어서는 문제행동으로 공격행동과 수업참여행동이 표적행동으로 대부분 설정되었다. 자리이탈행동, 소음내기, 부적절한 자세 등 수업참여 있어서 문제되는 행동을 고려해본다면, 수업에 있어서 행동의 문제가 가장 큰 고려점으로 보여진다.



<그림9 > 1단계 중재 시 수행 현황



<그림10 > 3단계 중재 시 수행 현황

- 1단계의 보편적 지원수준에서는 교수적 중재를 위한 전문가와 협력하는 연수부분을 제외하고는 실행을 위한 수행요소들을 모두 잘 갖추었다.
- 2단계의 소그룹지원은 1편이지만, 동일한 문제행동의 가진 학생들의 그룹을 만들어 기능분석을 하여 중재하였다. 다만 행동수정기법(선행사건 수정, 대체행동, 후속결과 강화)이 적용되었으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지는 않았다. 특히 전문가 협력이 제외되었다.
- 3단계의 개별지원은 대부분 수행요소들이 잘 적용되었다. 다만 중재효과를 기초선과 중재구간에 평균과 범위로 내었는데, 그 어떠한 연구도 중재효과(비중복비율)를 분석하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 긍정적 행동지원은 학교에서 주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수교육현장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대상도 유아부터 성인기까지 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수업과 관련된 문제행동 개선에 그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지원수준별로 분석해보면, 학교의 문화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행동지원 수준보다는 문제행동이 심한 대상자를 위주로 개별지원에만 맞추다보니, 집단 문화의 기대행동을 증진하기보다는 행동문제를 소거하는데 많은 연구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연구자와 교사간의 협력에서 교사의 교수적 중재를 통한 협력보다는 연구자의 행동관찰을 통한 분석으로 치우쳤다.
-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의 연동이 쉽지 않은 것도 보여진다. 학교실정상 같은 특성의 학생들을 집단으로 모아서 가르칠 시간적 확보와 물리적 공간이 여의치 않아 1단계와 3단계를 혼합해도 1,2,3 모두를 시행한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긍정적 행동지원이 제대로 학교에서 시행되려면, 기본적으로 체재개선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긍정적 행동지원이 한명의 전문가가 아닌 학교집단의 인력과 전문가가 팀접근으로 교수적 중재와 더불어 지원수준의 연계적 시스템이 이루어지 지않고서는 어렵다. 관찰한 내용의 분석, 효과적인 교수적 중재를 직접 교사가 시행하도록 알려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현장에서는 가장 필요하다.